

현대영어의미론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교수 박사 리 정 숙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야 합니다.》

많은 나라 대학들의 언어교육실태를 보면 언어교육에서 의미론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있다. 그것은 언어가 어음(글자)과 의미의 통일체로 존재하며 여기에서 의미가 언어의 중핵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실지에 있어서 언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언어의 말과 글로 표현되는 의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활용능력을 높여주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교육내용을 꾸리는데서 언어의미에 대한 과학리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것은 해당 외국어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외국어실천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본문에서는 먼저 국내외의 학자들속에서 진행되고있는 언어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분석에 기초하여 현대영어의미론연구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밝히려고 한다.

1.1.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분석

1.1.1. 의미에 대한 선행리론과 그 분석

언어의미에 대한 견해에서 대표적인것은 의미에 대한 심리주의적 및 물리주의적견해라고 찾아볼수 있다.

① 의미에 대한 심리주의적견해

의미에 대한 심리주의적견해의 대표적인 리론으로서는 개념설을 들수 있다. 개념설은 언어의미를 인간의 심리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인것으로 주장하는 리론이다.

개념설에서는 명명은 그 지시물이 지니고있는 공통된 속성의 총체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개념을 의미와 일치시키고 인간이 주위세계로부터 얻은 개념이 곧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개념설을 처음으로 내놓은것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쏘쾨르(Ferdinand de Saussure)였다. 그는 언어를 기호의 체계로 보면서 언어는 사물과 명칭이 결합된것이 아니라 언어적외피로서의 기호와 인간의 두뇌에 주어진 개념이 서로 결합된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의미와 개념을 동일시하였다.

개념을 곧 의미로 보는 심리주의적견해는 표상설로 전개되였다.

표상설은 명명에 의하여 사람의 심리속에 떠오르는 대상, 현상이 곧 의미인데 실례로

《집》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표상 즉 각이한 형태의 건물들이 다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였다.

이 리론은 개념을 의미와 동일한것으로 본것이라든가 의미를 한 언어의 어휘구성체 계속에서 전면적으로 연구하지 못한것과 같은 일정한 제한성이 있다.

② 의미에 대한 물리주의적견해

의미에 대한 물리주의적견해는 의미에 대한 심리주의적견해에 대립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심리주의적견해가 의미분석에서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과학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데로부터 객관성과 과학성을 가진 《의미》를 정의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 레하먼 블룸필드(Leonard Bloomfield)는 사람들이 《소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소금의 과학적개념인 NaCl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지시되는 《소금》이 그 대로 그 대상의 의미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리론은 단어의 기본의미를 규정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주는 동시에 심리주의적견해에 대치하던 나머지 의미를 지나치게 과학적측면에서만 분석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1.1.2. 의미에 대한 연구정형과 그 분석

① 의미를 언어전달의 내용으로 본 견해

《의미에 대한 연구는 오래동안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없다. 의미는 그 기능적측면에서 다면성을 가지기때문에 어느 한면만을 강조하면 다른 한면을 홀시하게 되며 연구에서 어느 한 측면에 기울어지게 된다. 이로부터 의미의 다면적인 기능에 류의하면서 언어전달의 복합작용전체에 부합되는 의미의 개념을 규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가 리해하는 의미란 언어전달의 내용으로 되는 부분을 말한다.》(《조선어의미론연구》 23페이지 1996년)

② 언어의미를 말뜻으로 본 견해

《통속적으로 말해서 언어의미란 말뜻이다. 말뜻은 단어와 문장을 비롯한 언어단위들에서 표현된다는것,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 말할 때의 정황에 따라 구체화되고 서로 다르게 개별화된다는것 그리고 말뜻은 언어의 내용면을 이루는것으로서 사람들사이의 의사전달의 내용, 사상감정의 표현으로 된다는것이 주되는 내용을 이룬다.》(《조선어의미구조론》 6페이지 주체94(2005)년)

③ 언어의미를 음운 또는 음운결합에 담겨진 내용으로 본 견해

《언어의 의미는 음운 또는 음운결합에 담겨진 내용이다.

형태부나 단어, 단어결합이나 구 및 문장과 본문은 어떤 음운이나 음운결합과 의미내용의 련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내용은 음운결합이나 음운이 가리키는 대상이나 개념을 말한다.》(《일반언어학》 69페이지 주체98(2009)년)

의미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의미란 말과 글의 언어형식에 의하여 전달되는 내용이라고 말할수 있다.

의미에 대한 연구정형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수 있다.

첫째로, 언어의미에 대한 정의를 위한 리론적기초를 옳바로 세우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둘째로, 언어의미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여 연구분석할 때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다.

의미연구의 선행리론들은 의미의 연구가 언어학의 다른 분과들과 불가분리적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어의미에 대한 연구는 어음론, 어휘론, 문법론, 문체론, 어용론 등 언어학의 모든 학문들과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연구분석할 때 가장 과학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셋째로, 언어의미를 말뜻으로 본것은 언어의미론연구에서 어용론적측면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는것을 보여준다.

1.2. 문제점제기

론문에서는 의미론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선행리론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밝히려고 한다.

첫째로, 언어의미정의의 리론적기초와 언어의미의 본질적특성을 밝히며

둘째로, 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주요내용을 확정하며

셋째로, 현대영어의미단위설정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밝히는것이다.

2. 본 론

2.1. 언어의미의 본질

2.1.1. 언어의미정의의 리론적기초

의미는 사람들의 사고활동의 대상으로 될수 있는 모든 현상, 대상들에서 다 표현되는 사회적인식의 창조물이다. 실례로 하나의 점, 선, 동그라미, 색깔, 그림 등과 대상, 건물의 형태 그리고 음악이나 무용, 사람들의 몸짓이나 표정, 침묵도 말과 글로 전달되는 의미내용을 담고있다.

이처럼 그 어떤 표현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의 의미내용을 전달할 때에 그 형식과 내용의 결합체를 언어라고 말한다.

언어의미란 어떤 언어적형식과 수단에 의하여 표현전달되는 정보내용을 말한다. 즉 언어의미에는 말과 글의 언어뿐만아니라 음악, 무용, 건축,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적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말할수 있다.

모든 사물현상들이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을 가지고있는것처럼 언어도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을 가지고있다.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형식은 내용에 따르면서 그것을 표현한다.

언어에서 내용은 의미를 말하는것이며 형식은 어음과 글자를 말하는것이다.

어음이란 발음기관의 한번의 조음에 의하여 나오는 하나하나의 소리를 말한다. 어음은 언어에서 가장 작고 기초적인 위치에 놓이는 물질적단위이다.

매개 언어에는 그것에 고유한 어음체계가 있으며 어음체계는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있다.

자음과 모음들이 바로 언어의 형식을 이루는 어음들이며 어음복합체의 형식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물질적외피이다.

어음은 언어의 형식적측면으로서 사회적교제수단으로서의 언어의 성격을 규제한다.

형식이 언어의 성격을 규제하는것은 의미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기호언어, 음악언어, 무용언어, 건축언어 등과 같이 각이한 언어분야들이 구체화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말과 글에 의한 언어의의미는 바로 어음이라는 물질적외피에 싸여 표현전달되는 언어의 내용적측면을 말한다.

2.1.2. 언어의의미의 본질적특성

언어의의미의 본질적특성은 세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첫째로, 언어의의미는 객관적인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 사고에 의한 개념과 판단의 총화에 토대하여 이루어지고 발전한다.

개념이란 사물현상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징표에 관한 지식을 담고있는 사고형식이다.

언어의의미는 객관적으로 개념에 토대하여 이루어지며 개념은 의미의 본질적내용을 특징짓는다. 따라서 개념은 의미와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개념과 의미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개념은 사고방식의 범주로서 논리적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의미는 언어적범주로서 언어체계안에서 언어적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개념은 객관세계의 사물, 현상, 과정, 성질, 상태 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본질적인 속성들을 내용으로 하고있지만 의미는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그외에 감정정서적의미를 비롯한 보충적의미를 포함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된다.

또한 모든 의미가 다 개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념을 나타내지 않는 유의미적인 단어부류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대명사, 감동사, 수사, 고유명사 같은것들은 개념을 나타내지 않고 대리적이거나 관계적인것 또는 감동의 표현으로 쓰인다. 다만 언어형식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기때문에 그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없을뿐이다. 이것은 개념마당이 의미마당보다 작다는것을 보여준다. 즉 《개념<의미》와 같이 표현할수 있다.

둘째로, 언어의의미는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하는 사회적현상으로서 사회적성격을 띤다.

언어의의미가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하는 사회적현상으로서 사회적성격을 띤다는것은 언어의의미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전 사회적규모에서 통일적인 성격을 띠면서 사람들의 언어행위에 사용된다는것을 말한다.

우선 인간은 고도로 발전된 두뇌와 발음기관에 의하여 주위세계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창조적사고 그리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전달할수 있는 언어능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언어의의미의 창조자, 향유자로 된다.

인간의 인식, 사고과정을 거쳐 주어지는 개념과 판단이 어음과 글자라는 언어적형식으로 고착될 때 의미객체(의미의 대상)는 비로소 언어적의미를 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의식활동과 언어구사를 통하여서만 실현된다. 그러므로 언어

의미는 전적으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사회적현상이다.

또한 언어의미는 하나의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사회적집단의 성원들모두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유산이다.

또한 언어의미는 사회적으로 공통적인 활동분야를 포괄한다.

공통적인 행동들과 관습들은 그 사회의 문화를 이룬다. 레하면 뜻깊은 명절에는 꼭 민족의상을 하는것, 설을 지내는 풍습 등이 민족들의 풍습이나 관습이라고 말할수 있다. 언어생활도 사회의 문화에 속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활동분야로 되는것만큼 언어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관습에 따라 사람들사이의 교제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언어의미가 사회적성격을 띤다는것을 보여준다.

셋째로, 언어의미는 철저히 민족적성격을 띤다.

언어의미의 민족적성격은 우선 어음과 의미의 자의적결합에서 찾아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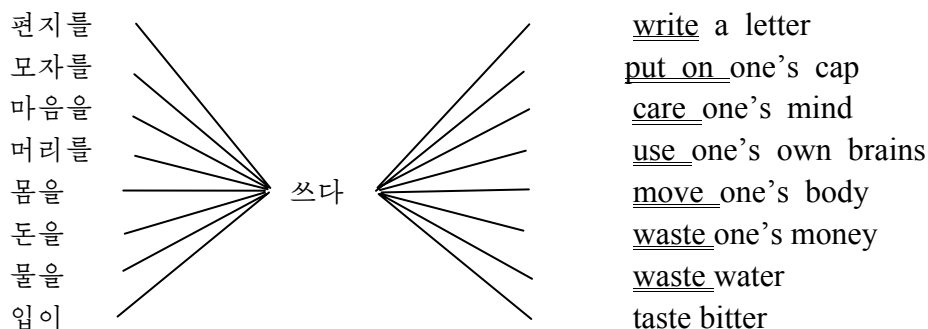
어떤 음운렬이 어느 특정한 의미에 대응되는가는 그 언어의 고유한 법칙으로 된다. 이것을 흔히 대상명명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자의성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어떤 특정한 음운렬을 대응시키는가 하는것이 해당 민족어의 소유집단에 달려있다는것이다.

실례로 H₂O의 개념은 조선어에서는 《물》이라는 음형을 가지지만 영어에서는 water[wə : tɔ], 로어에서는 вода[vada], 도이취어에서는 wasser[wásə]와 같이 서로 다른 음형을 가진다. 이와 같은 어음과 의미의 자의성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언어의미의 민족적성격은 또한 어휘적의미의 내용과 그 폭에서 찾아볼수 있다.

언어들에서 서술적기능에 의한 어휘적의미의 대상론리적의미는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해당 언어의 어휘적의미에 론리적내용과 함께 어떤 감정정서적내용이 담겨지는가 하는것은 민족마다 다르다. 레를 들어 조선어에서 파충류의 한 종류인 《뱀》은 《징그럽다》, 《끔찍하다》, 《소름이 끼치다》 등의 감정정서를 나타내기때문에 《뱀에게 놀란놈 새끼오리보고도 놀란다》 등의 성구와 속담들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서유럽나라들에서는 《뱀》이 《성스러운것》, 《용맹한것》 등의 감정정서적뜻빛갈을 가지고있다.

언어의미의 민족적성격은 또한 단어들의 뜻관계와 그 폭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단어의 뜻관계와 그 폭은 언어마다 다르다. 아래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조선어의 동사 《쓰다》는 영어에 비하여 다른 단어들과의 뜻관계와 그 폭이 대단히 넓다.



이것은 조선어와 영어에서 단어들의 의미폭이 같지 않다는것을 보여준다.

언어의미가 이처럼 민족적성격을 띠는것은 사람들의 생활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해당 민족의 력사와 문화가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기때문이며 언어의미가 해당 언어체계의 합법칙적과정속에서 변화발전하기때문이다.

2.2. 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주요내용

어음과 글자에 의하여 표현되는 언어의 중핵적인 의미부분을 리해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언어를 안다고 말할수 없다.

언어를 안다는것은 형식이라는 물질적외피에 의하여 표현되는 의미내용을 알뿐 아니라 의미의 식별능력과 활용능력을 갖추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현대영어의미론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영어의 말과 글에 의한 언어행위에서 의미의 식별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주는데 필요한 언어의미론적 지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의미현상들을 연구해야 한다.

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주요내용을 몇가지 형태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의미가 있는것과 없는것에 대한 의미식별능력이다.

다음의 실례들에서 의미가 있는것과 없는것을 식별하며 의미가 없다면 왜 없는가를 분석할수 있다.

- a. Henry drew a picture.
- b. Henry laughed.
- c. The picture laughed.
- d. Picture a Henry drew.

우의 레문들에서 a와 b에는 의미가 있으나 c와 d에는 정보적내용이 없다. 정보적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말들은 비문법적인 말로서 변칙성(anomaly)의 경우를 보여준다.

둘째로, 문맥적으로 본질상 같은 의미를 나타낼수 있는 동의어들의 의미적특성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다.

다음의 레문에서 문장의 옆에 있는 단어는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밑줄을 그은 단어와 교체될수 있다.

Where did you purchase these tools?(buy)

대입할수 있는 단어들이 주어진 문맥에서 유사한 뜻을 나타내는것은 이 단어들의 동의성(synonymy)에 기인된다.

셋째로, 주어진 문맥에서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의미적특성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다.

실례로 레문의 밑줄을 그은 단어에 대립되는 단어를 고를수 있다.

Betty cut a thick slice of cake.(bright / thin / soft / new / wet)

thin이 thick와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것은 이 단어들의 반의성(antonymy)에 기인된다.

넷째로, 동의어와 반의어를 구별적으로 특징지어주는 어휘-의미적속성에 대한 지식과 구별능력이다.

아래의 실례 a와 b에 있는 단어들은 어떤 공통적인 의미성분에 의하여 동의어와 반의어로 구분된다.

- a. street / lane / road / path / avenue

b. success / fail

다섯째로, 영어문장들에서 표현되는 모호성(ambiguity)에 대한 의미론적지식이다.

영어문장들은 어휘의미적, 문장구조적특성에 따라 때때로 모호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다.

예: a. Mary doesn't care for her parakeet.

해석: ① (doesn't like it: 매리는 애기앵무새를 좋아하지 않는다.)

② (doesn't take care of it: 매리는 앵무새를 돌보지 않는다.)

b. Mary took the sick parakeet to a small animal hospital.

(small hospital for animals: hospital for small animals)

①

②

해석: ① (매리는 병든 애기앵무새를 동물들을 위한 작은 병원으로 가져갔다.)

② (매리는 병든 애기앵무새를 작은 동물들을 위한 병원으로 가져갔다.)

위의 예문들의 정확한 의미는 문맥이나 사람들의 문장의미해석능력에 따른다.

여섯째로,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들에 대한 식별능력이다.

a. Rebecca got home before Harry.(레베카는 해리보다 앞서 집에 왔다.)

b. Harry arrived at home after Rebecca.(해리는 레베카가 온 후에 집에 왔다.)

위의 예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것에 대한 등가적인 진술을 나타내는 문장들로서 의역(paraphrase)의 경우를 보여준다.

일곱째로, 이야기내용의 의미적대립에 대한 식별능력이다.

아래의 예문들은 모두 한 사람에 대한것이지만 그중 한 문장이 진리이면 다른 문장들은 반드시 허위로 되는 방법으로 서로 련관된다.

a. Edgar is generous.(에드가는 너그럽다.)

b. Edgar is fairly young.(에드가는 상당히 어리다.)

c. Edgar is short.(에드가는 키가 작다.)

위의 예문들은 같은 주제에 대하여 반대되게 진술하는 대립(contradiction)의 경우를 보여준다.

여덟째로, 문장들의 함의관계(entailment)에 대한 의미론적지식이다.

두개의 진술문중에서 하나가 진리이면 다른것도 진리로 되는 방법으로 두 진술문들은 서로 련관될수 있다.

a. There are tulips in the garden.(정원에 튤립이 있다.)

b.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정원에 꽃이 있다.)

레문의 a와 b가 하나의 같은 정원을 념두에 둔것이라면 a의 진리는 b의 진리를 담보한다. 이 레문은 함의관계의 경우를 보여준다.

아홉째로, 문장들의 전제관계에 대한 의미론적지식이다.

문장에서 주어지는 정보적내용들은 전제로 되는 지식들을 배경으로 한다. 실례로 레문 a가 진리로 인정되면 사람들은 레문 b-e도 역시 진리로 인정한다.

a. Andy usually drives his Datsun to work.

(앤디는 보통 다츠를 타고 일하러 간다.)

b. There is a person named Andy.(앤디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c. Andy works.(앤디는 일한다.)

d. There is a Datsun that belongs to Andy.(앤디는 다츠를 가지고있다.)

e. Andy knows how to drive an automobile.(앤디는 차를 몰줄 안다.)

문장 a의 의미는 b, c, d, e와 같은 배경지식을 전제로 한다. 레문의 b, c, d, e와 같은 배경지식들은 문장 a의 전제들(presuppositions)이다.

열째로, 대화에서 적중하게 표현할줄 아는 언어활용능력이다.

대화에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그에 대하여 가능한 각이한 대답들을 하거나 응수하는 말을 할수 있다. 아래의 레문에는 질문에 대한 일부 답변들이 주어졌는데 c를 내놓고는 모든 답변들이 적중하다고 볼수 있다.

When did you last see the professor?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선생님을 보았습니까?)

a. I think it was on the first of June.(6월 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 Last Tuesday.(전번주 화요일에 보았습니다.)

c. Very nice.(대단히 좋습니다.)

질문과 대답 혹은 두번의 발화가 대화로 이어지고 여기서 두번째 발화가 첫번째 발화에 적중하게 련관된것이면 그것들은 대화쌍방이 발화의 적중성(compatibility)에 따르는 언어활용능력을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언어행위에서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활용하는 의미의 변칙성, 영어어휘의 동의성, 반의성, 의미속성, 모호성, 영어문장들의 동의관계, 반의관계, 함의관계, 전제관계, 발화행위의 적중성 등은 현대영어의미론연구와 교수실천에서 주요내용을 이룬다.

2.3. 현대영어의미단위의 설정

언어의미론연구에서 의미단위문제는 언어의미론연구의 학술적인 체계를 정립하고 의미연구의 대상과 그 영역을 확정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서는 의미단위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게 된다.

첫째로, 의미단위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로, 선행리론들에서 제기된 부족점들을 극복하면서 의미단위를 과학리론적으로 타당성있게 정립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로, 의미단위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내용들이 취급되어야 하는가?

론문에서는 먼저 의미단위설정을 위한 기준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어의미단위를 의미의 체현단위와 실현단위로 새롭게 제기하고 밝히려고 한다.

2.3.1. 의미단위의 설정기준

언어적단위가 지니고있는 일반적인 징표가 그러한바와 같이 어떤 의미표식이 의미단위로 되려면 언어행위에서 재생될수 있고 시차적특성에 의하여 구획될수 있어야 하며 총계적관계를 이루면서 의미표현이 실현되어야 한다.

언어에는 형태부, 단어, 문장, 본문 등의 언어단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언어적단위들은 종국적으로 언어행위에서 의미표현의 실현을 위하여 복무하는 실질적의미의 단위들이다.

언어의 모든 질서들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의미와 련관관계를 가지며 종국적으

로 언어가 사람들사이의 통신수단으로서 복무하도록 이바지하는데로 지향된다.

언어의 모든 단위들이 다 사람들사이의 사회적교제의 내용으로 되는 통신적의미를 실현하는데 참가하지만 그것들이 의미와 관계하는 방법과 측면은 꼭같지 않으며 의미실현에 참가하는 단계도 서로 다르다.

실지 언어행위에서 실현되는 통신적의미는 모든 언어단위들이 동시에 참가하여 단번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말소리들이 결합되어 유의미적형태소를 이루고 또다시 재생되어 문장의 의미실현에 참가할수 있는 자립적인 어휘소를 이룬다. 이렇게 원시적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어휘소에 체현된 의미는 문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통신적의미를 실현할수 있는 문장을 이룬다. 문장은 또다시 문장군, 문단으로 묶이여 본문을 이루어 정보전달을 완결시켜주며 대화자들사이의 통신을 보장한다.

이것은 모든 언어단위들이 다 언어적의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규칙에 복종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의미와 관계하며 통신적의미의 실현에 참가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언어의미의 실현에 참가하는 언어단위들 말하자면 형태소, 어휘소, 문장, 본문은 모두 언어의 의미단위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문제는 이 의미단위들이 의미와 관계하는 단계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단위설정기준을 설정한데 기초하여 논문에서는 언어의미론연구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의미표식들이 의미와 관계하는 방식과 역할에 따라 언어의미단위를 의미의 체현단위와 실현단위로 구분하려고 한다.

2.3.2. 의미의 체현단위

1) 의미의 체현단위에 대한 리해

의미의 체현단위란 객관세계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미내용들을 실질적인 언어행위에서 사용할수 있게 어음복합체에 고착시켜놓은 언어의 양면적인 단위들을 말한다.

영어의미의 체현단위에는 형태소와 어휘소가 속한다.

어휘소란 독자적이며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있으면서 말과 글의 언어행위에서 지시하고 설명하는데 참가할수 있는 언어의미체현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영어의미체현의 기본단위는 어휘소이다.

그것은 우선 형태소와 비교하여볼 때 어휘소가 어휘의미적으로 일반화와 추상화가 완전히 실현된 자립적인 언어단위이기때문이다.

형태소들에는 의미적자립성을 가지고 뜻조각으로 더는 갈라지지 않는 말뿌리형태소들이 들어있으며 의미적자립성이 없고 독자적으로 언어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자립적인 형태소들도 많다.

말뿌리형태소들은 의미구조적으로 어휘소와 등가적인 지위에 있지만 덧붙이형태소들은 의미-구조적으로 자립성이 없으며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어휘소는 의미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으며 언어행위속에서 재생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덧붙이들과 같은 형태소들은 의미-구조적으로 일반화와 추상화가 철저하게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어휘소와 등가적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또한 형태소와 어휘소가 관계하는 언어적단위들이 같지 않기때문이다.

형태소는 유의미적단위들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이다. 말뿌리와 말줄기, 덧붙이 등

의 형태소들은 어휘소를 의미-구조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참가한다면 어휘소는 보다 자립적이고 완성된 의미-구조적형태를 갖추고 그보다 높은 단계인 문장의 의미를 실현시키는데 참가한다.

따라서 형태소는 유의미적최소단위로서 어휘소보다 낮은 질서의 의미체현단위이며 어휘소는 형태소에 비하여 보다 높은 질서의 의미체현단위라고 말할수 있다.

어휘소(lexeme)는 의미체현의 기본단위이다.

어휘소의 개념은 1977년 라이언즈(Lyons)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의미론》(주제97(2008)년)에서는 어휘소를 의미체현단위로 지적하였지만 의미의 체현단위와 실현단위에 대하여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한 제한성이 있다.

《어휘소는 하나의 독자적이고 완전한 의미체현단위이며 여러 언어행위에서 재생되는 특성을 만족시켜주는 표현단위이다. 어휘소는 의미표현의 완전하고 독자적인 단위로 되며 동시에 의미실현의 기본단위로 된다.》(39페이지)

어휘소란 독자적이며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있으면서 말과 글의 언어행위에서 지시하고 설명하는데 참가할수 있는 언어의미체현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어휘소는 형태소와는 달리 객관세계의 대상 및 현상들과 련계를 가진다.

선행한 전통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를 언어의 기본단위로 취급하여왔다.

론문에서는 단어와 어휘소가 일정하게 구획되는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구별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다음의 실례를 통하여 단어와 어휘소를 구별할수 있다.

a. go, going, went, gone

b. put up with, kick the bucket, dog in the manger

이 실례는 1977년에 라이언즈가 단어와 어휘소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어휘소(lexem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보여준것들이다.

실례 a에서 네개의 형태들은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어휘적의미와 거기에 첨가된 서로 다른 문법적성질의 의미들도 가지고있다. 따라서 a의 형태들은 서로 다른 네개의 문법적의미들을 가지고있는 형태단어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네개의 형태들은 어휘소 go의 형태단어들이다.

실례의 a에서 어휘소와 단어와의 관계를 상수와 변종의 관계로서 설명할수 있다.

《상수적인것》 또는 《상수》는 수학에서 불변량을 나타내는 글자나 수를 가리키는 《상수》의 개념을 언어학에 도입하여 붙인 용어이다. 상수는 변종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언어에서 상수적인것(상수)이란 구체적인것들에서 일반화된 언어의 추상적인 구조적단위, 요소, 유형들을 말한다.

우의 실례에서 go는 같은 의미를 가진 네개의 형태단어들의 상수이며 네개의 형태단어들은 상수인 어휘소 go의 변종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휘소와 단어의 관계는 이처럼 상수와 변종의 관계로 리해할수 있다.

실례 b에서는 다른 문제점을 찾아볼수 있다. 표현 put up with는 어휘소들인 put와 up, with가 결합되어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개별적인 어휘소들의 결합적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endure(참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성구들은 자기 고유의 어휘적의미를 보유하는 하나의 어휘소로 된다. 또 다른 실례를 들면 kick the bucket는 die(죽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휘소이다.

이와 같이 단어, 성구, 속담과 같은 각이한 어휘적형태로 고착된 사람들의 인식결과는 어휘소들의 의미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어휘소는 하나의 독자적이고 완전한 의미를 체현하고 여러 언어행위들에서 재생될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의미체현의 기본단위이다.

2) 의미체현의 기본단위로서의 어휘소의 의미내용과 표현방식

의미체현의 기본단위인 어휘소는 대상론리적상관성과 감정정서성을 기본내용으로 체현하고있다.

어휘소의 대상론리적상관성은 서술적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감정정서성은 표현적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대상론리적상관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미(대상론리적의미)를 서술적의미라고도 하며 언어의 표현적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감정정서적의미(뜻빛갈)를 표현적의미라고도 한다.

어휘소의 대상론리적의미(서술적의미)는 언어밖의 현상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미이며 뜻빛갈(표현적의미)은 사람들의 태도와 감정에 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이다.

대상론리적상관성과 감정정서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미들은 서로 대립되면서도 보충하며 뚜렷이 구별된다.

어휘소가 의미하는것은 부분적으로 관계적측면인 다른 어휘소들과의 련관성에 의하여 표현된다. 말하자면 말과 글에서 표현되는 어휘소의 의미는 그것이 어떤 다른 표현들과 함께 어울려 나타나는가 혹은 어떤 표현들과 대조되어 나타나는가 등의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어휘소의 의미와 그것이 언어형식에 활용되어 나타내는 의미에는 실질적차이가 있다. 말과 글에서 어휘소들이 부여받는 의미들은 이야기에서 그것들과 련관된 다른 어휘소들과의 논리적의미관계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한 어휘소가 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의미를 그 단어의 뜻(sense)이라고 한다.

어휘소들의 뜻관계는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한 어휘소가 구나 문장에서 함께 어울려 쓰이는 다른 어휘소들과의 관계이다. 실례로 arbitrary는 judge와, happy는 child와, sit는 chair와, read는 book나 newspaper와 의미적으로 어울려 쓰일수 있다. 구나 문장에서 어휘소들이 논리적으로 의미적련관을 가지고 어울리는것을 통합적관계(syntagmatic relations)라고 말한다. 통합적관계는(필수적으로 꼭 그 옆에 오지 않지만) 련속으로 된 둘 혹은 그이상의 어휘소들의 호상련관관계로서 때 어휘소들은 다른 어휘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그것들의 의미는 모두 구나 문장과 같은 보다 큰 단위의 의미를 실현시키는데 참가한다.

둘째로, 구나 문장에 대입될수 있는 어휘소들의 관계이다. 실례로 사람들은 《The judge was arbitrary.》라고 말하지 않고 《The judge was cautious.》라고 말할수도 있다. 혹은 arbitrary대신에 careless, busy, irritable 등의 어휘소들을 대입할수 있다. 문장에서 대입될수 있는 어휘소들의 이러한 관계를 련합적관계(paradigmatic relation)라고 말한다. 련합적관계는 또한 선택적관계라고도 말한다. 그것은 같은 위치에 올수 있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서 임의의 단어를 선택할수 있기때문이다.

어휘소들의 뜻관계를 방향적으로 표시하면 통합관계는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

여 의미구조적으로 결합되는 수평적관계이며 련합관계는 가능한 의미령역의 어휘소들이 논리적으로 대입될수 있는 수직적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2.3.3. 의미의 실현단위

1) 의미의 실현단위에 대한 이해

문장은 일정한 문법규칙의 지배밑에서 자립적인 어휘소들과 문법적기능어들의 결합으로 구라는 의미단위를 구성하고 그것이 더 확대되어 절을 이루며 절들이 결합하여 전일적인 하나의 완성된 통신적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의미실현의 기본단위이다.

전통언어학에서는 문장의미론문제가 언어학의 주요연구대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전통언어학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단어와 단어결합의 의미로 보거나 문법의 관계적의미로만 보았다.

사람들사이의 언어교제는 어휘만을 가지고 실현되거나 문법만을 가지고 실현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어휘와 문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상을 표현할수 있는 문장에 의하여 실현된다. 때문에 전통언어학연구에서 어휘와 문법이 언어학의 주요범주로 인정되었다면 현대언어학연구에서는 그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문장과 본문의 의미연구에 초점이 돌려지고있다.

이것은 현대언어학연구가 언어실용론적방향으로 향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어휘가 언어의미를 잠재적으로 가지고있는 의미체현단위라면 문장은 언어에 잠재적으로 체현되어있는 의미를 통신적의미로 실현시키는 의미실현의 기본단위이기때문이다.

통속적으로 말하여 언어의미론의 일관한 연구목적은 인류력사발전과정에 매개 언어들의 어휘구성에 잠재적으로 고착되어있는 사전적의미가 사람들의 구체적인 언어행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밝히며 그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명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언어의미실현단위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장구조의 총계성, 문장의미실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요소에 중점을 두고 연구할수 있다.

2) 문장구조의 총계성

일반적으로 총계성(hierarchy)이란 낮은 총계의 단위로부터 높은 총계의 단위로 상승적인 질서를 이루는 단계적성격을 말한다.

문장의 총계구조는 단어들이 의미-구조적으로 서로 상관되는것들끼리 먼저 결합한 다음 그 결합체들이 그보다 높은 총계로 확대되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장구조가 총계적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문장의미의 실현도 총계성을 띤다. 문장의 의미는 문장구조를 이루는 아래준위들의 의미에 기초하여 실현된다.

문장구조의 총계를 이루는 하부구조들에서 단어는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된다. 모든 문장준위의 구조들은 단어들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것들의 상관관계를 맺어주는 결합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문장구조의 가장 기초단계를 이루는것은 구(phrase)구조이다. 구란 하나의 품사소속성에 기초하여 식별될수 있는 문장의 기초적성분단위이다. 구는 문장에서 개별적인 단어들이 가장 단순한 단어결합규칙에 따라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의 문장론적결합구조이다. 구는 그자체가 아직은 문장이 아니지만 문장구성을 위한 기초성분으로 된다. 구구

조의 의미는 그것들을 구성하고있는 단어들의 의미와 이 단어들을 결합시키는 문장론적 결합질서에 의하여 주어진다.

구의 결합질서는 구의 의미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① grandfather of father(father's grandfather)(아버지의 할아버지)

② father of grandfather(grandfather's father)(할아버지의 아버지)

문장구조의 아래준위에는 또한 절(clause)의 구조가 있다.

단순구조단어결합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구는 보다 높은 형태의 결합관계에 따라 문장형태를 기본적으로 갖춘 절을 형성한다.

구가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구조의 1차적인 결합구조라면 절은 단어나 구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준문장론적구조이다. 절을 문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것은 절에 문장의 기본징표인 진술성이 결여되어있기때문이다.

문장의 본질은 진술성에 있다.

진술성이란 진술내용이 현실과 맺는 련계의 성격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진술내용을 현실과 련관시킬 때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이야기대상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존칭관계, 양태적관계, 시칭관계 등의 문법적성격을 말한다.

진술내용은 말하는 사람의 진술적의도에 따라 적중한 단어들이 선택되고 그 단어들이 문법구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실현되는 절의 의미내용이다.

진술성의 의미는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현실에 귀착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문장의 현실적의미로 특징지어진다.

영어에서 문장과 절을 구분해주는 진술성은 진술내용의 시작과 끝에서 실현되는 문장론적표식과 억양에 의하여 실현된다.

영어문장의 진술성은 문장의 시작과 끝에서 실현되는 문장론적표식에 의하여 표현된다.

억양은 문장과 절을 구분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억양은 진술성의 기본담당자이다.

억양은 일정한 언어적단위를 문장으로 만들고 그의 갈래를 규정지으며 진술내용의 의미적차이나 의미적색갈을 가를뿐아니라 문장론적단위들을 구획짓고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절은 진술내용은 있지만 진술성이 없기때문에 문장으로 되지 못하며 문장은 진술내용과 진술성의 표식들을 다같이 가지고있으므로 문장구조의 형태를 갖추고있다고 볼수 있다.

영어에서 절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장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절들이 나타내는 진술내용들과 절들을 결합하는 접속사들의 어휘-문법적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구로부터 시작하여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와 같은 문장구조의 준위들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의미는 단어의 의미와 해당 준위에 작용하는 결합규칙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총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구구조의 준위에서는 단순한 단어결합의 원리가 작용하며 절구조의 준위에서는 구성성분들사이에 상관관계의 결합규칙이 작용한다.

문장은 이와 같은 구와 절의 구성원리에 기초하여 총계적으로 건설되며 문장의 기본징표인 진술성을 획득함으로써 언어의미실현의 기본단위로 된다.

3) 문장의미실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요소

문장의미실현의 언어적요소에는 어휘와 문법, 운률소가 있다.

우에서 본 문장구조의 아래준위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특징은 매 준위의 구조들이 단어의 어휘적의미와 문법의 관계적의미의 항시적이며 전일적인 결합체들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문장이 철두철미 어휘와 문법을 재료와 설계도로 하여 만들어지며 어휘적의미와 관계적의미의 의미적복합체라는것을 증명해준다.

문장의 통신적의미는 또한 억양과 력점을 기본으로 하는 운률소에 의하여 담보되며 완성된다.

그러므로 어휘와 문법, 운률소는 문장을 이루고 통신적의미를 실현시키는 문장의미실현의 3대구성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문장의미실현의 비언어적요소에는 언어환경이 있다.

언어의미실현에서 언어환경의 중요성은:

첫째로, 다의적문장인 경우 여러 문장의미가운데서 어느 의미로 쓰이였는가를 가려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둘째로, 중단문이나 불완전구조로 된 문장의 의미를 보충하고 완성하여준다는데 있다.

셋째로, 문장이외의 여러 어용적의미를 보여준다는데 있다.

언어환경 즉 사람들의 처지와 심리상태, 이야기의 정황 등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총계적으로 형성되는 문장구조는 우에서 본 언어적 및 비언어적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관계속에서 실제적인 문장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3. 결론

언어의미정의의 이론적기초와 언어의미의 본질적특성, 언어의미연구의 주요내용, 의미단위설정 등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현대영어의미론연구의 기초적인 이론적문제들로서 영어교수실천에서 제기되는 언어의미의 성분화원리와 의미마당문제, 영어어휘의 다의성문제, 영어문장의미의 모호성문제, 언어행위의 표현방식 등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명하며 교수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과학리론적기초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의미론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과학리론적토대를 보다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실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언어의미, 의미단위, 어휘소, 문장의미, 총계성